

日정부 주도해 미국에 불교 전파

이민용 대표, '서구불교의 탄생' ... '책방불교도' 등 신앙행태 다양



이민용 교수는 "미국은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나름대로 소화하고 미국화·서양화 하고 있다"며 미국 불교의 특징을 설명했다. 사진은 명상수행 중인 서양인들의 모습.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이민용 대표가 이끄는 '서구불교의 탄생'은 최근 (국행수륙대재·삼화사 수록재를 중심으로) (조계종출판사 刊)을 출간해 수록재의 실제적 이론과 방법을 고찰했다.

이민용 대표는 (국행수륙대재)에서 △수륙재가 기반을 두고 있는 소의경전 △수륙재가 거쳐 온 역사 △수륙재의 의례문과 현존하는 의례문 △현제 전해지고 있는 수록재의 의미와 형식 등을 차례로 정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대규모로 지내는 수록재는 강원도 동해시 두타산 삼화사의 국행수륙대재다. 이민용 대표는 이 책에서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라는 조선시대 수록의례문에 근거해 3일 동안 치러지는 삼화사 수록대재의 전 과정인 준비의식, 본의식, 회향의식을 시간 순으로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수록재는 불교 의례인 만큼 일정한 틀과 형식이 있다. 시련의식, 대령의식, 괘불이운의식 등의 의식 절차 못지않게 사자단, 오로단, 상단, 중단, 하단 등의 단과 시련소, 관육소 등의 의식 시설 역시 중요하다. <국행수륙대재>에서는 각 단과 소의 의미 그리고 구체적인 시설방법 및 진설의 내용 등을 일일이 설명하고 단방과 방문, 번 등의 내용도 예시로 보여준다.

또한 <국행수륙대재>는 구전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식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과 의미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삼화사 국행수륙대재의 현장 사진 100여 컷을 의식 절차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이민용 대표는 "수록재는 '물과 물에서 떠도는 외로운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제사의식'이라고 정의 내려지나 정확하지는 않다. 수록재라는 말 속의 수록은 물과 땅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어 그는 "수록재는 성인과 범부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상징이다. 그러므로 수록재는 성인과 범부, 깨달은 자와 미혹한 중생, 성스러움과 속스러움, 죽은 자와 살아 있는 자 모두가 둘 아닌 하나로 차별 없이 평등하게 한자리에 모여 범식을 베푸는 재회"라고 정의한다.

이민용 대표는 책을 통해 수록재의 방법론에만 주목하지 않고 수록재가 갖는 의례의 내면에 있는 상징과 의미를 고찰해 수록재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도록 했다. 이나은 기자

이민용 대표가 이끄는 '서구불교의 탄생'은 최근 (국행수륙대재·삼화사 수록재를 중심으로) (조계종출판사 刊)을 출간해 수록재의 실제적 이론과 방법을 고찰했다.

이민용 대표는 (국행수륙대재)에서 △수륙재가 기반을 두고 있는 소의경전 △수륙재가 거쳐 온 역사 △수륙재의 의례문과 현존하는 의례문 △현제 전해지고 있는 수록재의 의미와 형식 등을 차례로 정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대규모로 지내는 수록재는 강원도 동해시 두타산 삼화사의 국행수륙대재다. 이민용 대표는 이 책에서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라는 조선시대 수록의례문에 근거해 3일 동안 치러지는 삼화사 수록대재의 전 과정인 준비의식, 본의식, 회향의식을 시간 순으로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수록재는 불교 의례인 만큼 일정한 틀과 형식이 있다. 시련의식, 대령의식, 괘불이운의식 등의 의식 절차 못지않게 사자단, 오로단, 상단, 중단, 하단 등의 단과 시련소, 관육소 등의 의식 시설 역시 중요하다. <국행수륙대재>에서는 각 단과 소의 의미 그리고 구체적인 시설방법 및 진설의 내용 등을 일일이 설명하고 단방과 방문, 번 등의 내용도 예시로 보여준다.

또한 <국행수륙대재>는 구전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식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과 의미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삼화사 국행수륙대재의 현장 사진 100여 컷을 의식 절차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이민용 대표는 "수록재는 '물과 물에서 떠도는 외로운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제사의식'이라고 정의 내려지나 정확하지는 않다. 수록재라는 말 속의 수록은 물과 땅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어 그는 "수록재는 성인과 범부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상징이다. 그러므로 수록재는 성인과 범부, 깨달은 자와 미혹한 중생, 성스러움과 속스러움, 죽은 자와 살아 있는 자 모두가 둘 아닌 하나로 차별 없이 평등하게 한자리에 모여 범식을 베푸는 재회"라고 정의한다.

이민용 대표는 책을 통해 수록재의 방법론에만 주목하지 않고 수록재가 갖는 의례의 내면에 있는 상징과 의미를 고찰해 수록재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도록 했다. 이나은 기자

이민용 대표가 이끄는 '서구불교의 탄생'은 최근 (국행수륙대재·삼화사 수록재를 중심으로) (조계종출판사 刊)을 출간해 수록재의 실제적 이론과 방법을 고찰했다.

이민용 대표는 (국행수륙대재)에서 △수륙재가 기반을 두고 있는 소의경전 △수륙재가 거쳐 온 역사 △수륙재의 의례문과 현존하는 의례문 △현제 전해지고 있는 수록재의 의미와 형식 등을 차례로 정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대규모로 지내는 수록재는 강원도 동해시 두타산 삼화사의 국행수륙대재다. 이민용 대표는 이 책에서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라는 조선시대 수록의례문에 근거해 3일 동안 치러지는 삼화사 수록대재의 전 과정인 준비의식, 본의식, 회향의식을 시간 순으로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수록재는 불교 의례인 만큼 일정한 틀과 형식이 있다. 시련의식, 대령의식, 괘불이운의식 등의 의식 절차 못지않게 사자단, 오로단, 상단, 중단, 하단 등의 단과 시련소, 관육소 등의 의식 시설 역시 중요하다. <국행수륙대재>에서는 각 단과 소의 의미 그리고 구체적인 시설방법 및 진설의 내용 등을 일일이 설명하고 단방과 방문, 번 등의 내용도 예시로 보여준다.

또한 <국행수륙대재>는 구전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식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과 의미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삼화사 국행수륙대재의 현장 사진 100여 컷을 의식 절차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이민용 대표는 "수록재는 '물과 물에서 떠도는 외로운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제사의식'이라고 정의 내려지나 정확하지는 않다. 수록재라는 말 속의 수록은 물과 땅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어 그는 "수록재는 성인과 범부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상징이다. 그러므로 수록재는 성인과 범부, 깨달은 자와 미혹한 중생, 성스러움과 속스러움, 죽은 자와 살아 있는 자 모두가 둘 아닌 하나로 차별 없이 평등하게 한자리에 모여 범식을 베푸는 재회"라고 정의한다.

이민용 대표는 책을 통해 수록재의 방법론에만 주목하지 않고 수록재가 갖는 의례의 내면에 있는 상징과 의미를 고찰해 수록재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도록 했다. 이나은 기자

미등 스님, <국행수륙대재> 펴내

최대 규모 삼화사 수록대재 전과정 소개



'국행수륙대재' (조계종출판사 刊)

수록재에 대한 최초의 본격 연구서가 나왔다.

미등 스님(불교문화재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국행수륙대재·삼화사 수록재를 중심으로> (조계종출판사 刊)을 출간해 수록재의 실제적 이론과 방법을 고찰했다.

미등 스님은 <국행수륙대재>에서 △수륙재가 기반을 두고 있는 소의경전 △수륙재가 거쳐 온 역사 △수륙재의 의례문과 현존하는 의례문 △현제 전해지고 있는 수록재의 의미와 형식 등을 차례로 정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대규모로 지내는 수록재는 강원도 동해시 두타산 삼화사의 국행수륙대재다. 미등 스님은 이 책에서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라는 조선시대 수록의례문에 근거해 3일 동안 치러지는 삼화사 수록대재의 전 과정인 준비의식, 본의식, 회향의식을 시간 순으로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수록재는 불교 의례인 만큼 일정한 틀과 형식이 있다. 시련의식, 대령의식, 괘불이운의식 등의 의식 절차 못지않게 사자단, 오로단, 상단, 중단, 하단 등의 단과 시련소, 관육소 등의 의식 시설 역시 중요하다. <국행수륙대재>에서는 각 단과 소의 의미 그리고 구체적인 시설방법 및 진설의 내용 등을 일일이 설명하고 단방과 방문, 번 등의 내용도 예시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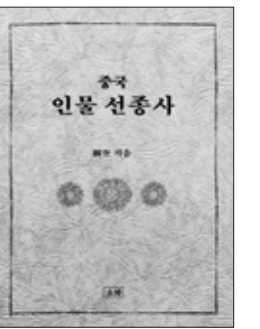
또한 <국행수륙대재>는 구전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식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과 의미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삼화사 국행수륙대재의 현장 사진 100여 컷을 의식 절차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미등 스님은 "수록재는 '물과 물에서 떠도는 외로운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제사의식'이라고 정의 내려지나 정확하지는 않다. 수록재라는 말 속의 수록은 물과 땅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어 그는 "수록재는 성인과 범부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상징이다. 그러므로 수록재는 성인과 범부, 깨달은 자와 미혹한 중생, 성스러움과 속스러움, 죽은 자와 살아 있는 자 모두가 둘 아닌 하나로 차별 없이 평등하게 한자리에 모여 범식을 베푸는 재회"라고 정의한다.

미등 스님은 책을 통해 수록재의 방법론에만 주목하지 않고 수록재가 갖는 의례의 내면에 있는 상징과 의미를 고찰해 수록재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도록 했다. 이나은 기자

궁금했던 선사들의 일상

원공 스님, <중국인물선종사> 펴내



'중국인물선종사' (도방 刊)

중국 선종사의 역대 선사들을 차례로 다룬 학술서가 출간됐다.

원공 스님(동국대 선학과 박사)은 <중국인물선종사> (도방 刊)을 펴내 일반적으로 인물을 중심으로 나열하는 선종사가 아닌 선사가 살아온 생애와 행적, 깨침을 얻은 기원, 학인들을 제정하는 방편 등을 중점적으로 서술했다.

원공 스님은 "학문적인 면을 근거로 선사들의 독특한 사상과 일상의 다양한 일화 등을 소개해 선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불교와 정신치료' 27일 학술대회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임상전문가 초청 발표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는 1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불교와 정신치료'를 주제로 가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영국 심리학자 데이비드 브레이저(David Brazier)가 '불교심리치료와 상담'을 주제로, 이주내 경북대 명예교수가 '불교와 정신치료'를 주제로 발표한다.

두 발표자는 심리학·심리치료와 불교를 통합해 현대 불교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에 공헌한 임상전문가이다. 데이비드 브레이저는 국내에도 소개된 <선치료 Zen Therapy>의 저자이며, 이주내 교수는 스위스 융연구소와 현존재

분석연구소를 수료했으며, 현재 부산 대동병원의 진료교문을 맡고 있다.

토론에는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미산 스님, 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서광 스님,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김재성 교수, 전현수 정신과전문의, 윤호균 은마음상담원 마음향기 대표, 서동혁 밝은서울정신과 원장이 참여한다.

참가비는 회원·학생·성직자는 3만원, 일반인은 5만원이다.

이나은 기자

한국선학회, 종밀선사 조명 추계학술대회 27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한국선학회(회장 송묵)는 11월 27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종밀선사의 시대인식과 선사상'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박인식 교수(연세대)의 '종밀 선사상의 문헌적 기원과 전개' △김진무 교수(동국대)의 '불교비판에 대한 종밀선사의 대응과 시대인식'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종밀선사에 대한 발표에 나선다.

이나은 기자

한국선학회, 종밀선사 조명 추계학술대회 27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한국선학회(회장 송묵)는 11월 27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종밀선사의 시대인식과 선사상'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박인식 교수(연세대)의 '종밀 선사상의 문헌적 기원과 전개' △김진무 교수(동국대)의 '불교비판에 대한 종밀선사의 대응과 시대인식'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종밀선사에 대한 발표에 나선다.

이나은 기자

중국 선종사의 역대 선사들을 차례로 다룬 학술서가 출간됐다.

원공 스님(동국대 선학과 박사)은 <중국인물선종사> (도방 刊)을 펴내 일반적으로 인물을 중심으로 나열하는 선종사가 아닌 선사가 살아온 생애와 행적, 깨침을 얻은 기원, 학인들을 제정하는 방편 등을 중점적으로 서술했다.

원공 스님은 "학문적인 면을 근거로 선사들의 독특한 사상과 일상의 다양한 일화 등을 소개해 선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단청분야의 대혁신!!!

옷칠단청

천년보장 옷칠이 꼭 필요한 곳: 사찰단청, 기존 단청 보호, 사당, 문중재실, 일반한옥, 목조주택.

천년고찰을 꿈꾸는 스님에게만 옷칠 단청의 혜택을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단청은 밀풀, 아교, 포리졸을 사용한 화학 재료기법으로 공해는 물론 방충, 방습, 방염의 천적으로부터 보존·보호 능력이 전혀 없어 3년 단위로 방충제, 방염제를 살포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옷칠단청기법은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완전 해결해 줌으로 천년을 보장하는 친환경 천연 칠로서 목재보호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불화의 맥을 이은 금호, 보은, 일섭, 우일스님 문중의 수석만제자

불광미술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178-4

단청, 방화, 개금 3절장인

만성조기환 010-6426-2563 (042)254-2567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6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오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쇗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2010년 12월 1일까지

◆개강일시: 2010년 12월 2일 매주(목) 오후 5시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갈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